조계사, 성역화 사업 토대 구축한다

주지 지현 스님 2월 19일 신년기자회견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올해부터 서서히 본궤도에 오른다. 조계사는 지난해 성역화 주요부지에 위치한 건물을 잇따라 매입하고, 올해부터 이를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총본산 성역화 사업 현황 등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사는 2016년부터 성역화를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주요부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잇따라 매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조계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부지 규모는 2000㎡ 가량, 2016년 처음 매입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019년 선재어린이집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사는 특히 지난해 매입한 건물들을 활용해 사찰 재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 또는 직역매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등 관계부서와 임대 사업을 위한 법적 · 행정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총본산 일대의 녹지화 및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타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지 지현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조계사를 믿고 따라준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1700년 한국불교 위상에 걸맞는 가람 건립을 위해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범종루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의 낙후되고 가파른 계단을 철거하고 완만한 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종루의 낡은 북을 교체하는 등 범종루의 전반적인 환경 미화로 총본산 성역화를 향한 조계사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2월 19일 신년기자간담회서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 현황 공개
불교전통문화 보존·전승 추진
지역 사회의 나눔 확대 본격화
"비대면 신행 혁신 주도할 것"

불교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에도 본격 매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목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의 가치 재조명이다. 조계사 목불 좌상은 최근 도갑사 부처님과 유사한 상호와 삼각형으로 접힌 옷주름 표현 등이 조선전기 왕실 지원으로 제작된 도갑사 불상군 중 한 부처님일 것이란 학설이 제기되면서 그 조성시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조계사는 지난 1월 목불좌상 X-ray 촬영 등 과학적 조사를 마치고 그간 연구 축적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 3월 목불좌상의 국가문화재(보물) 승격신청을 추진 중이다.

불자 뿐 아니라 서울시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더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나눔 · 자비실천도 대폭 확대된다.

조계사는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린이집과 종로구마을자치센터 등 복지시설 수탁운영을 비롯,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등을 통해 연간 5억원 이상 규모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행복나눔 집수리 봉사-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사업을 새롭게 진행해 이웃을 위한 세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조계사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경복궁 책방길 템플스테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어린이 · 청소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계사 역사탐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맞는 비대면 신행프로그램 혁신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조계사는 SNS를 통한 유튜브 법회 생중계, 카카오 채널을 통한 조계사 소식 안내, 온라인 불교교육 등으로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교육과 법회 생중계, SNS 활용은 물론, '佛짬뽕' '총총 조계사' 등 참신한 컨텐츠에 주력해, 불자들의 혁신적인 온 · 오프라인 신행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현 스님은 "조계사는 불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 인구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나눔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조계사로 거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에도 장애인 복지 확대를"

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조석영 관장 선출돼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생활과 연결된 필수유지 서비스가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과 이후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13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관장<사진>이 당선됐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회장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조석영 관장은 총 232표 중 143표를 획득, 61.6%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까지다.

불자인 조 관장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근무를 시작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부장, 사무국장을 거쳐 관장으로 수십년간 재직 중에 있다.

불교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장 관장은 협회 최초로 선거를 통해 이뤄진 이번 협회장 선출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한국형 장애인복지관 실천모델 기반의 아시아 · 태평양 국제교류협력 추진 △장애인복지관 유형, 지역 특성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복지관 뉴노멀시대 대응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선도적 사업 전국 보급과 운영지원 등을 내세웠다.

장 관장은 "전국의 245개 장애인 복지관 관장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현재 위기에 처한 장애인복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휴관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교육, 중등돌봄 등 방역 하에서의 서비스 제공이란 화두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관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실내에서 많은 서비스가 이뤄진다. 개념을 바꿔 자연 속에서 이들의 심신치료와 정서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다양한 자연환경 활용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노위, 미얀마군부 폭력 희생자 추모제

2월 25일 주한미얀마대사관서 "군부, 탄압 중단하라"촉구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촉구하다 폭력적인 진압에 희생된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 법석이 한국에서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2월 25일 재한미얀마청년연대와 함께 서을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사회노동위원회 이날 미얀마 민주화 시위 중 군인들의 발포와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5명에 대한 추모기도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행위 중단과 폭력적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그간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쿠데타 중단과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조계종 종단기구가 이와 관련해 법석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사노위는 특히 군부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향한 추모와 함께 폭력적인 진압 중단을 요청해 주목된다.

기도회는 사노위 위원 고금 스님의 법고시연을 시작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고통받는 미얀마인들의 평화를 발원하는 스님들의 염불로 진행됐으며, 박준 평화노동자 · 민중가수의 공연과 위원장 지몽 스님의 발언도 이어졌다.



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25일 미얀마 폭력진압에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특히 사노위는 스님들의 염불이 진행되는 동안 장엄했던 괘불에 이어, 미얀마어와 한글로 제작된 추모현수막을 걸어 그 고통을 위로했다.

지몽 스님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시민들은 잔인한 무력 탄압에 고통받고 있고 민주화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무차별 발포와 조준 사격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군부독재의 탄압을 먼저 겪고 민주화를 이뤄냈던 한국이 이같은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군부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기도회는 종교를 넘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취지"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살상과 무력은 용납돼선 안 된다. 군부는 즉시 무력탄압을 중단하고 불법체포 및 구금된 시민을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광덕 스님 전법원력 잊지 않겠습니다"

불광사, 광덕 스님 22주기 추모법회 봉행

광덕 스님의 열반 22주기를 기리는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서울 불광사 · 불광법회는 2월 20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금하당 광덕 대종사 2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지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도 큰스님 추모법회에 동참해주어 감사드린다"며 "보현보살 전법보살로서 무주상의 바라밀 수행과 문화를 향도하셨던 스님의 전법과 원력을 잊지 말고 보현행원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주지 진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축년 한해를 준비하고 다짐하는 정초 7일기도 회향이 마침 광덕 스님 22주기 추모법회와 함께하는 날이라 큰스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증명해주실 것이라며 7일기도를 회향한 대중들을 격려했다.

법문에서는 광덕 스님 생전에 설한 마하반야바라밀 수행에 관한 가르침이 영상으로 전해졌다. 스님은 영상법문에서 "우리들이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서 우리들 자신 가운데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무한공덕장 세계, 이것을 믿고 부처님이 증명하신 것을 생각해자. 우리 진실수행을 더욱 게을리 하지 말자"는 당부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사는 2월 20일 광덕 스님 2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